

水路夫人說話小攷

林 治 均*

I. 서 론

삼국유사 권 2에 실려있는 수로부인 설화는 그 짧은 양에도 불구하고 선학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그 일차적 이유는 본 설화가 사건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이 단지 사건의 나열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추론과 비약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데 있다. 또한 본 설화가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독립된 사건으로 하나씩 다루어도 괜찮다는 여유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본 설화에 대한 논의성과는 축적되었으나 정설화되지 못하여 아직도 연구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여지를 채워보고자 하여 시도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앞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수로부인 설화에 대한 보다 새롭고 타당성 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뒤 이들 문제점을 염두에 둔 분석과 종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방향은 기존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II. 기존연구 검토

필자가 불민한 탓으로 많은 연구업적을 살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찾아 본 연구의 양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기에 이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필자는 도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수로 부인 설화에 등장하는 인간 4명(水路夫人, 純貞公, 老人 1,

* 박사 과정

지금까지의 연구 일람표

(도표 1)

人物	純貞公	水路	老人 1	老人 2	꽃	소	海龍	結論	比考
論議 김중우, “향가문학의 종교적 성격” (『국어국문학』 5, 국어국문학회, 1959)	貪花女人	牧羊神		結合物				유유 자치한禪僧 노래	A
허영순, “수로부인 설화에 나타난 가요의 신교찰” (『국어국문학집』 2, 부산대, 1961)	精神·病者 (巫의病)	呪力 지닌 노인	一個巫覡				惡神	꾼속의 일 擧族, 擧村의 祭儀	C'
김선기, “꽃 만탄 노래” (『현대문학』 153, 1967. 9)	人 問	神仙		호牡 영생상징				목숨 바친 사랑 수로 부인의 아픔 다움 노래	C
고희, “회화에 대한 배경적 소고” (『문신교대논문집』 3, 1970)	人間	求愛者		神仙			부서울 조화의 신 (인자과)	여성지위격상, 확시적 자유연애	A
주재훈, “고대문학에 나타난 동물상징고” (『문학사태논문집』 8, 1970)						생산력 상징		農耕 사회의 흥배사상	A
장덕순·이어령, “노인 허기화”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1)	絶代美人	求愛者 (은지, 도자)					정채불명 男	사랑 노래 사랑 노래	C
최철, “향가와 그 작가에 관한 연구” (『강원대연구논문집』 5, 1971)	天神	水神	神			生産性		神話의 事件	A

이제진, "신라가요의 어문법과 수사(「항가의 어문법적 연구」, 서강대, 1972)										세속계의(도설가에 비해)	A
김영규, "항가의 문학적 연구일반"(「항가의 문학적 연구」, 서강대, 1972)	溺死者									招魂祭로서의가승성	B
인영희, "고대인물에 만영귀魂의 의미"(「아세아여성연구」, 11, 숙대, 1972)	巫(샤먼)	(꿈속의)山神		再生						꿈속의 일	A
김동욱, "신라항가의 불공분한적 고찰" 이상혁외편(「국문학논문선」, 민중서관, 1977)	一般老翁									純粹한 즉흥가요	A
황재남, "삼국유사 수록부인조문학연구" 4, 강원대사대, 1979)	영·웅이 일치된 여인	農神	老人 1과 同一		생산력					절리, 시련, 제편입의 통과제의 질차로 불	C
홍재호, "수로부인 선화고"(「여성문예연구」 9, 효성여대, 1980)	精神倒錯者(没人情)	呪力가 존재	神異한 존재	時代背景 암시						食美的 欲求 해소 정신도착증의 치료	C
최리자, "회화가고"(「국어국문」 21, 전북대, 1980)	貨族	神仙 境지에 도달한 존재	神仙 境지에 도달한 존재							꽃을 매개로 이루어진 사랑 呪歌로 응을 달림	C'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원광대 출판국, 1980)	絶世美人 一個農民									Romance(상하층 사랑)	C
									순정공룡보다 우월 인물	사랑담치극(여론으로 해결)	

老人 2)”)과 비인간 셋 (躑躅花, 犛牛, 海龍)은 모두 중요한 존재이다. 그런데 필자가 살펴 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우선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체를 규명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정체규명의 상이에 따라 논의의 결과도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체규명을 중심으로 기존연구를 검토하겠다. 발표연대순으로 살펴 보겠으며 ‘현화가’와 관련된 설화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A로 ‘해가’와 관련된 설화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B로 그리고 두 사건을 함께 다룬 것은 C’와 C로 표시했다.”

이상의 도표는 개별 연구업적들에 보이는 논의전개의 흐름을 살펴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지금까지 대체로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는 잇점이 있다.” 이들의 연구에는 크게 두가지의 문제점이 야기된다. 하나는 본 설화를 대하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본 설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자세이다.

첫째, 본 설화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본 설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현화가부분, 혹은 해가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되었거나 두 사건을 함께 살폈다고 하더라도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된 이야기가 엮여져 있는 듯한 의식하에서(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이루어진 논고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본설화가 행차과정이라는 동일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본 설화 속의 두사건이 수로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유기적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분리하여 살펴거나 전혀 다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설화를 연구하는 자세에 있어서의 문제점

- 1) 편의상 현화가에 관련된 설화에 등장하는 노인을 老人 1, 해가에 관련된 설화에 등장하는 노인을 老人 2로 하였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도표에서도 같은 명칭이 사용될 것이다.
- 2) C’는 두 사건을 아무 연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과가 판이하게 나온 연구를 표시하는 것이며 C는 두 사건을 연속선상에 놓고 보아 일정한 연관성 속에서 결과를 도출한 연구를 표시한다.
- 3) 본 고에서는 각각의 논문이 갖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본 설화에 대해 논의한 연구물들이 갖는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기에 도표 사용이 본고 진행상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4) 도표에서 A와 B, 그리고 C’로 표시된 논고들이 이에 속한다.

이는 특히 두사건을 같은 문맥으로 파악한 연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태도는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려는 자세로 구분된다.⁵⁾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랑노래’로 보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여러 형태의 祭儀’⁶⁾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노래’로 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이다. ‘사랑노래’로 보는 경우 海龍과 마찬가지로 神物 또한 다른 남자로 해석된다. 그러나 버젓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주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은 신라가 설사 성개방사회라고 할지라도 수증하기 어렵다. 또한 “여러 형태의 祭儀로 보는 경우 水路夫人을 巫 또는 入巫過程의 女人, 祭物, 심지어는 溺死者로 정체를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후에 상술하겠지만, 기록에 따르면 수로부인은 꽃과 해룡에 어쩔 수 없는 보통인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보통인을 추론이 앞서 ‘巫’나 그 유사인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큰 문제점 외에도 사소한 내용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다.

따라서 본고는 이상의 문제점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 1) 두개의 사건은 유기적 관계로 얽혀 있음에 유의하며
- 2) 기록을 따르면서 상징적 의미를 찾아 내겠다. 즉 기록에 보통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로를 巫나 그 유사한 인물로 파악한다면 본 설화의 실재적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Ⅲ. 분석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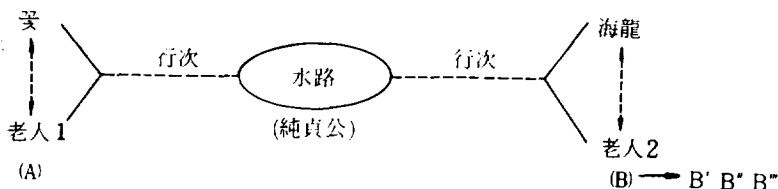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수로부인 설화는 디테일상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바로 이 누락된 부분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 5) 물론 전자의 경우에도 상징적 의미의 추론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두 자세는 모두 어느 한쪽이 종속적인 구실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6) 홍재효의 경우처럼 정신도착증 치료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려는 자세에 속한다. (도표 참고)

우선 삼국유사에 실린 본 설화의 전문을 살펴 보겠다.

“聖德王代 純貞公赴江陵太守今溟州 行次海汀畫饋 傍有石嶺 如屏臨海 高千丈 上有躑躅花盛開 公之夫人水路見之 謂左右曰折花獻者其誰 從者曰非人跡所到 皆辭不能 傍有老翁牽犂牛而過者 聞夫人言折其花 亦作歌詞獻之 其翁不知何許人 便行二日程 又有臨海亭 畫饋次 海龍忽攬夫人入海 公顛倒躓地 計無所出 又有一老人告曰故人有言衆口鑠金 今海中傍生 何不畏衆口乎 宜進界內民作歌唱之 以杖打岸則可見夫人矣 公從之 龍奉夫人出海獻之 公問夫人海中事 曰七寶宮殿 所饋甘滑香潔 非人間煙火 此夫人衣襲異香 非世所聞 水路姿容絕代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 衆人唱海歌 詞曰龜乎龜乎出水路 掠人婦女罪何極 汝若傍逆不出獻 入網捕掠燻之喫 老人獻花歌曰紫布岩乎邊 希執音乎手 母牛放教遣 吾躬不喻慚躬伊賜等 花躬折叱可獻乎理音如?”

본 설화는 크게 (1) 행차·행선지 설명 (2) 천화가 관련 설화 (3) 해가 관련 설화 (4) 부연설명 (5) 노래 소개의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사건이 있는 곳은 (2)와 (3)이다. 논자들은 (1)과 (4)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3)부분까지 도출된 결론은 그럴듯해도 그것으로 (4) 부분까지 설명하려면 문제가 생겼던 것이며, (1)을 무시했기에 두사건의 유기적 관계를 드러내지 못한 논고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설화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에서 보듯이 본 설화는 수로부인을 중심으로 꽃 등장인물들이 얽혀 있다. 그럼 이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먼저 살펴 보자.

· 純貞公……江陵太守

- 水路夫人……太守夫人, 姿容絕代
- 躑躅花……非人跡所到,
- 老人 1……牽犂牛而過者, 折花者
- 海龍……掠水路, 海中傍生
- 老人 2……救水路者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水路夫人과 純貞公은 꽃과 해룡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보통 인간에 불과하다. 달리 말하자면 꽃과 해룡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老人 1, 2만은 예외이다. 여기서 우리는 꽃과 해룡, 그리고 노인 1, 2에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록상 일상인에 지나지 않는 수로부인을 巫 또는 그 유사인물로 보는 것은 기록보다 추론이 앞선 경우이며, 또 기록상 상징적 존재로 드러나는 ‘꽃’을 단순한 ‘사랑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기록의 내면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본 설화는 이러한 현실적 존재와 상징적 존재의 상호관계가 밝혀져야만 그 참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순정공은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고 있다. 태수는 중앙찬에서 사지의 官階 6~13등급의 높은 관직이다.⁸⁾ 따라서 부임해 가기 전까지 수로부인은 지체 높은 신분의 여인으로 시중만 받던 여인이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수로부인이 험한 길인 강릉까지 여행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무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水路姿容絕代’는 어쩌면 요새 말하는 결핵성 미인⁹⁾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 신라시대의 미인관을 알 수가 없어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집안에만 있었던(실사 집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인, 수로부인에게는 경주—강릉까지의 노정은 힘에 겨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점심을 위해 쉬는 동안 이번 행차에서 자신의 안녕을 비는 기원제를 올리고 싶어했던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 수로는 꽃을 원한다. 그러나 그 꽃은 너무 높이 있어 아무도 꺾을 수 없다. 보통인간은 할 수 없

8) 박노준 ‘천화가 해석’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1982)에서 재인용

9) 마치 병이 있는 듯 얼굴이 창백하면서 몸은 허약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는 것이다. 그런데 老人¹은 늙은 몸으로 그 일을 해낸다.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지 않으면 결코 해석되지 않는다. 본 설화에 나타나는 꽃은 紫色을 띠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紫色은 매우 신비한 색으로 나타난다.¹⁰⁾ 또한 꽃은 여성이며 재생과 생식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¹¹⁾ 특히 무가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효험을 지니고 있다. 간단한 예로 경상도 바리때기 무가를 살펴 보면¹²⁾

피 셀 꽃을 치시구 내리시구
살 생길 꽃을 치시구 내리시구
숨 터질 꽃을 치시구 내리시구

(방점필자)

이처럼 꽃은 생명력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붉은 꽃은 신비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수도는 이번 행차가 자신에게 무리임을 알고는 점심을 위해 쉬는 동안 꽃이 바쳐짐으로서 완성되는 안녕기원제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呪力이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기에 從者들은 서로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 길가던 늙은이가 있었다. 그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소지하고 있었지만 초청되거나 안면이 있지도 않았다. 다만 수로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吾躬不喻慚躬伊賜等(나를 안디 붓그리 사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¹³⁾이라고 노래하면서…… 아직 향가의 해독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 속뜻은 ‘나를 꺼리지 않는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잘것 없는 늙은 몸이지만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의 의미인 것이다. 신라 향가의 배경설화에 있어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왕에게 발탁되어 능력을 펴 보인 경우가 다른 곳에서도 보이니 왕이 원

10) 有一白馬 跪拜之狀 尋檢之 有一紫卵(卷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大光明於始林中 有紫雲 從天垂地(卷一 金闍智 脫解王代)

有紫繩 自天垂而着地(卷一 駕洛國記)(방점필자)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11) 안영희, ‘고대인들에게 반영된 꽃의 의미’ (『아세아 여성연구』 11, 숙명여자대학교, 1972) p. 211.

12) 김태곤, 「황천무가연구」(창우사, 1966) p. 202.

13) 김완진, 「향가 해독법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p. 68~70 참고.

하던 범패 대신 향가를 불렀던 月明師가 대표적 인물이라 하겠다.¹⁴⁾ 여기서도 月明師는 왕이 애초에 원하던 범패는 할 수 없었지만, 그만큼 능력이 있기에 二日並現의 현상을 없앨 수 있었다. 월명사가 왕에게 말한 ‘只解鄉歌 不閑聲梵’도 역시 ‘향가 밖에 모르는데 왜참옵니까?’의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老人 1은 마침내 꽃을 따다 바침으로써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낸다. 페비스트로스에 의하면 복서부 태평양 연안의 어떤 종파의 샤먼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입에 숨을 넣고 자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묻힌 뒤 꺼내 보이면서 이것이 환자의 몸에서 쫓겨난 병원체라고 하는데 이는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¹⁵⁾ 이것이 이 상황에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 현화가 관련설화는 어떤 물건(꽃)을 매개로 안녕의 확신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端午날 菖蒲湯으로 세수를 하면 일년의 액을 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菖蒲를 呪草로 인정한 때문인 것이다.¹⁶⁾ 현화가 관련설화에 나타난 紫花도 같은 성격인 것이다. 이렇게 기원제를 마친 뒤 이들은 다시 이들을 행하고 쉬려 한다. 그러나 이런 길에 익숙치 못한(교통로가 험하다는 것을 기록 속에서 알수 있다) 수로는 그만 정신을 잃게 된다. 그런데 수로가 정신을 잃은 장소는 有臨海亭, 바로 바다가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 속에 있는 해룡이 수로를 잡아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여기서 그 악신을 쫓는 제액제가 열릴 필요가 생긴다. 크게 祭는 공동제와 개인제로 나누어진다. 공동제는 마을, 또는 부락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열리지만 개인제는 개인의 번영, 행복, 逐病을 위해 열린다.¹⁷⁾ 여기서는 수로를 위한 개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허영순씨가 마을 사람들이 동원된다는 점을 들어 거족적, 거촌적 제의로 보아야 한다고 했으나¹⁸⁾ 대체로 이러한 공동제는 지정된 날에 하는 것이 상례이며, 본 설화에서와 같이 즉흥적으로 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14) 三國遺事 卷 5, 月明師 兜率歌 참고.

15) 페비스트로스, 『구조인류학』(김진옥역, 종로서적, 1983) pp. 165~175 참고.

16) 『한국 민속대관』 3, 민간신앙 종교(고대 민족문화연구원, 1982) p. 372.

17) 村山智順, 『朝鮮의 郷土神記』 第二部 釋尊, 祈雨, 安宅(조선총독부, 1938) p. 252.

18) 허영순, ‘수로 부인 설화에 나타난 가요의 신고찰’ 『국어국문학지』 2, 부산대, 1961), p. 114.

안다. 제액제는 병기의 원인이 되는 악귀 병마를 퇴산시킨다는 믿음에서 생긴 것이다.¹⁹⁾ 본 설화에서 병마를 퇴산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以杖打岸하는 행위와 입을 모아 큰 소리로 노래부르는 행위인 것이다. 지금도 전남의 삼음(全南의三音)을 살펴 보면

“전남지방에서는 병의 기운이 있을 때 독경자를 불러 제액기도를 하게 하는데 이것을 삼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종과 太鼓를 치고 독경을 하면 어떤 악마도 이 삼음을 듣고는 도망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다”²⁰⁾ 이 뿐만 아니라 같은 책 부록 「각도에서 행해지는 개인제」의 개황도표를 보면 병마를 쫓을 때면 무엇인가를 쳐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본 설화에서 以杖打岸하고 노래 부르는 것은 모두 병마를 쫓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宜進界內民作歌唱之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進界內에 유념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그저 進界內民으로 보아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석했으나 ‘界內로 들어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제의를 행할 곳으로 읍기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로가 정신을 잃은 곳은 亭인데, 亭은 일반적으로 제의를 지내는 청결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 예로부터 제의의 공간은 신성하며 현실공간과는 구별되어 있다.²¹⁾ 따라서 어찌할지 모르는 순정공을 대신해 제의를 주관하던 老人 2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마을에서 제의를 행하던 일정장소로 읍기라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그 마을은 해안마을이다. 현화가가 불리워진 배경은 높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무척이나 신성감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배경설명도 섬세한 편이다. 그러나 수로 부인이 해룡에게 납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有臨海亭’이라는 것 외에는 없다. 따라서 제의를 행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신성감을 그 자체 기록만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제의는 효과가 있었다. 해룡이 수로부인을 데리고 나와서 바쳤다는 것은 수로가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계속 여행을 하는 것은 몸 약한 수로에게는 무척 힘에 겨웠을 것이다. 深山大澤은 특히 교통로가 좋지 않은 곳

19) 村山智順, 전계서 pp. 320~321.

20) 村山智順, 전계서 p. 322.

21) 김태곤, ‘한국무속의 원형연구’ (『한국민속학』 12, 민속학회, 1980) p. 35.

이다. 이러한 深山大澤에서 神物에 의해 자주 납치되었다는 것은 힘에 부친 수로가 혼절하거나 거의 그 지경에 자주 이르렀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때마다 유사한 제액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현화가와 관련된 사건, 즉 안녕기원제는 사고의 예방책으로 한 번으로 족하지만 해가와 관련된 사건, 즉 제액제는 사고의 해결책으로 여러번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랑노래이거나 탐미의 갈등과 해소로 본다면 현화가와 관련된 사건과 유사한 유형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IV. 結 論

지금까지의 본 설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모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필자는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고를 시도하였다. 본고는 1) 현화가, 해가에 관련된 두 사건이 유기적 관계로 얽혀 있음에 유의하고 2) 기록을 따르면서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록으로 보면 수로와 순정공은 아무 힘 없는 보통인이고, 다만 꽃과 老人 1, 해룡과 老人 2는 모두 상징적 존재로 드러난다.

2. 수로는 귀족계층으로 시중만 받아오던 여인이기에 강릉까지의 여행은 신체적으로 무리이다. 그래서 안녕을 위한 기원제를 거행하고자 했다. 붉은 꽃은 바로 신성한 생명력의 상징이며, 老人 1은 그 제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노인은 꽃을 따다 바치는 행위로 그 의식을 끝낸다.

3. 계속 여행해야 하는 수로는 기원제에도 불구하고 바다가에서 혼절한다. 이를 사람들은 海龍(악신)이 납치해 갔다고 믿는다. 그래서 除厄祭가 열릴 필요가 생긴다. 老人 2는 그것을 주관하는 자이다. 以杖打岸과 唱歌는 악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4. 이 제액제는 효험이 있어 수로는 의식을 회복한다. 그러나 몸이 약한 수로는 교통로가 험한 深山大澤에서 계속 비슷한 경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기록으로 보더라도 기원제는 사고예방책으로 한 번 밖에 없지만, 제액제는 사고해결책으로 여러번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5. 끝으로 한가지 덧붙힌 것은 宜進界內의 문제이다. 이는 아마도 界內, 즉 戒의를 행할 수 있는 心성공간으로 들어가라는(옳기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본 설화는 行차과정이라는 동일상황에서 수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安寧기원계와 여러 戒액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㉔